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2월 23일(주일) 제1283호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안내

감기증상 및 발열, 코로나19 유행국가 및 지역 방문 성도 교회 출입금지
오늘부터 예배 외 모든 양육 및 사역모임 취소, 교회 시설 사용금지
교회 출입할 때 모든 성도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로 손소독 의무 실시
교회식당·새가족반 당분간 운영중지, 인사는 목례, 차세대 예배 영상대체

온누리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오늘(23일)부터 온누리교회 예배 외 모든 양육 및 사역모임을 취소한다. 교회 시설 사용은 어제(22일)부터 금지됐다. 4월까지 교회식당, 새가족반이 중단된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감기증상(기침, 가래, 목아픔)이나 발열(37.5℃ 이상)이 있는 성도, 한 달 이내 중국 또는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아시아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성도들은 교회에 오지 말고, CGNTV나 온누리교회 유튜브를 활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위한 장소 외에는 교회 내의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

새가족반도 당분간 운영하지 않는다. 등록을 원하는 성도들은 4월부터 문의하면 된다. 교회식당도 당분간 운영하지 않는다.

교회 내에서는 예배시간을 포함해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기침 예절(기침이 나올 때 옷소매나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교회 시설에 출입할 때에는 각 예배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제를 사용해서 의무적으로 손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원하는 성도들은 비치되어 있는 일

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해도 된다.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염병의 확산이 중단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차세대 예배는 2주 동안(2월 23일, 3월 1일) 영상으로 대체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수님의꿈아이 영역은 CGNTV 어린이 예배(차세대 유튜브 공식계정)로 진행하고, 꿈이자리라는 팟 영역은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차세대 유튜브 공식계정). 파워웨이크는 성인 예배 CGN LIVE로 예배를 드린다. 3월 1일

이후 예배에 대해서는 3월 6일 공지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공동체, 아이스쿨 공동체 필수과목, 순예배 개강을 4월 이후로 연기했다. 여성사역도 스쿨의 개강을 4월 이후로 연기했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세미나도 개강을 연기했다. 순장영성수련회는 취소됐다. 온누리도서관 운영도 잠정 중단된다. 도서관 납은 정상화 이후 하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에 따른 성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감기증상(기침, 가래, 목아픔)이나 발열(37.5℃ 이상)이 있는 분, 그리고 한 달 이내 중국 또는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아시아국가나 지역을 방문하신 분은 CGNTV나 온누리교회 유튜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배 외에 모든 양육과 사역모임을 취소합니다. 예배를 위한 장소 외에는 교회 내의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새가족반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4월부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회 식당은 당분간 운영되지 않습니다.
5. 교회 내에서는 예배시간을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주시고, 기침 예절(기침이 나올 때 옷소매나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기)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6. 교회 시설에 출입할 때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제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 주

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차세대 예배는 2주간(2/23, 3/1) 영상예배로 대체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9. 예품은 씨지엔티비(CGNTV) '어린이 예배'로 진행(차세대 유튜브 공식계정)합니다.
10. 꿈땅은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자체 제작된 영상으로 예배 진행(차세대 유튜브 공식계정)합니다.
11. 파워웨이크는 성인예배 씨지엔 라이브(CGN LIVE)로 예배 진행합니다.
12. 2주(2/23, 3/1)이후 예배 진행에 관해서는 3/6(금)에 공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전염병의 확산이 중단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일시: 2월 29(토) 오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제직회

일시: 3월 1일(주일) 3부 예배 후
서빙고 본당
대상: 모든 제직

공동의회

일시: 3월 1일(주일) 3부 예배 후
서빙고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제직회 및 공동의회 주요안건

1. 결산보고
2. 감사보고
3. 평남노회 청원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요한복음 14:25-31(2월 26일 본문)

본문 주제: 증인(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영상제목: 성령님의 목적 - 이인호 목사

내용: 오늘날 도덕, 율법 운동으로 세상을 의롭게 변화시키겠다는 노력은 바리새인이 이미 경험한 실패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적용질문: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https://youtube/EvF7pdrHBsA>

▶ QR코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배 외 모든 양육 및 사역모임 등이 취소됨에 따라 온누리신문을 당분간 8면 제작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사순절 성경필사

차세대, 오늘(23일) 성경필사노트 배부, 26일부터 시작

차세대사역본부가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사순절 성경필사’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쓰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고난을 묵상하는 프로그램이다. 말씀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틀림없다.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차세대 모든 부서에서 실시한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사순절 성경필사의 의미부터 유익, 성경필사노트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차세대사역본부가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사순절 성경필사’가 바로 그것이다. 혼자 하기 막막했던 성경필사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사순절 기간 동안 정해진 분량만큼만 필사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필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쓰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좋은 기회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한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노아 홍수 때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창 7:4),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을 기록했다(출 34:28).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고(민 14:33),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마 4:1).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 인내를 상징한다.

성도들은 40일 동안 이어지는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기간만큼은 더욱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절제한다. 결국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간이다.

사순절 기간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성경필사노트를 활용하면 된다. 성경필사노트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순절 기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한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정해진 성경 본문을 함께 읽는다.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그날 읽은 말씀을 성경필사노트에 기록한다. 그날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삶과 사역, 고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로 마무리 한다. 날짜를 정해서 가족들이 돌아가며 기도해도 좋다. 만약 온 가족이 함께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성경필사노트를 들고 있는 꿈땅 아이들.

모이기 힘든 경우라면 각자 그날의 성경본문을 읽고, 성경필사를 한 다음 기도로 마무리하면 된다. 주일에 일주일 동안 해온 성경필사를 점검하고, 소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준비한 성경필사노트는 저학년용(미취학 아동, 유년부)과 고학년용(초등부, 과외웨이브)이 있다. 고학년용 성경필사노트는 보통의 성경필사노트와 마찬가지로 왼편에는 본문 말씀이 쓰여 있고, 오른편에 본문을 따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글을 읽고 쓰기가 어려운 저학년용 성경필사노트는 흐릿한 글씨로 성경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그

글자를 따라 쓰면 된다. 읽고 써야 할 말씀이 많은 날에는 성경본문을 기록하는 대신 그림 일기를 쓰는 칸이나 본문을 설명해주는 그림이 그려있다. 이를 활용하면 재미있게 성경필사를 이어갈 수 있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준비한 성경필사노트는 오늘(23일)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차세대 예배에서 배부한다. 성경필사노트는 올해 사순절 기간인 오는 2월 26일(수)부터 4월 10일(토)까지 정해진 날짜와 분량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필사에는 차세대사역본부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도 참여한다.

사역칼럼



노희배 목사
(차세대사역본부장)

국민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한다. 저녁식사를 준비하시던 어머니께서 분홍색천으로 만든 작은 자루에 쌀을 한 움큼 넣으셨다. 나는 어머니께 “거기에 쌀을 왜 담아요?”라고 질문했다. 어머니는 “교회에 가지고 갈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 나에게서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할 만큼 강력했다.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께서 성경가방에 성미자루를 넣고 교회에 가시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 나는 그 장면을 ‘신앙의 기억’이라는 도서관에 꽂아두고 지금도 필요할 때 꺼내곤 한다. 이처럼 유아기나 아동기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은 어린 시절 들었던 성경이야기, 신앙의 추억들을 자양분으로 신앙이 자라난다. 이러한 자양분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주변

에 있는 어른들이다. 이들을 ‘중요한 타자’라고 한다. 자녀 신앙양육의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부모는 행동과 선택이 신앙적인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나는 자녀에게 신앙양육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신앙양육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인가?’ 등의 질문이 자녀 학교의 급식표, 선생님과의 교우관계, 건강상태 등의 질문보다 훨씬 우선되어야 한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선포한다. 이 선포는 오늘 나의 삶, 우리의 가정에도 울리는 말씀이며, 자녀 신앙양육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면 물음이 생긴다. 자녀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신명기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부모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다. 부지런히 알려준다는 것은 하루 중에서 네 때, 즉 낮아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에 교육해야 한다는

‘신앙의 기억’이라는 도서관

것이다. 부모라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자. ‘나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식탁에서, 자녀가 집을 나설 때, 잠자리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가?’ 만약 하고 있다면 ‘자녀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교육하고 있는가?’를 질문해보라.

나는 차세대에서 15년 동안 사역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자녀의 신앙양육을 위해 애쓰는 부모를 보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자녀의 신앙양육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신앙교육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방법을 몰라 손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무엇을 하려고 하면 많이 어색하고 자녀가 잘 따라올지 걱정이 돼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자녀들이 귀찮아해서 멈추게 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이심을 하루 중 ‘네 때’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교육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 말씀 뒤에 제시되는 것이 제도이다. ‘이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매고, 마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의 문과 문설주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 교수방법이다. 믿는 이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는 2019년부터 매달 성경말씀이 적힌 식빵모양의 카드를 자녀들을 통해 가정에 보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요’라고 적힌 야광액자를 가정에 보냈고, 아침과 저녁 침대에서 읽기를 부탁했다. 식탁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크리스마스에는 각휴지를 나눠줬다. 올해 역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말씀식빵과 액자는 그대로 진행되고, 식탁 신앙양육을 위해 각휴지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에 제공될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은 사순절 기간을 이용한 ‘가족 성경 쓰기’이다. 차세대에서 제공되는 가정신앙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의 지식과 함께 신앙의 추억이 매일 쌓여가기를 소망한다. 차세대들 모두가 그 추억들을 신앙의 기억이라는 도서관에 꽂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어 신앙을 지켜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는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거룩의 본래 뜻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된 분입니다. 그분만이 홀로 존재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영원히 홀로 존재하십니다. 그분만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차원에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미움과 분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실 수 있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거룩하라’는 명령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구별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연결된 존재로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통치자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자연 속에 살지만 초자연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기에 자연과 초자연의 중간 연결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분이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하심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덧입어야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노력, 열심, 인간이 만든 규례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규례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며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손뼉 치며 찬양

할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은 슬픔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 거룩이요, 세상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지만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은 절망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포기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 거룩이 중심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언제나 거룩합니다. 거룩을 선택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이들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그 시대 다니엘은 바벨론에 전쟁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역사를 반전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잘못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한 나라를 무력으로만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까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주시키고 고립시켜서 그 나라의 문화와 철학을 교육시켜서 정체성을 빼앗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학문과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바꾸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영혼같이 소중했습니다. 그들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이름은 ‘엘’이나 ‘야’로 끝납니다. 스가랴, 히스기야, 예레미야 등 ‘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도 야와 엘로 끝납니다. 그 이름이 바뀌는 수치 속에서 그들에게 엄청난 신앙도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누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과 신앙의 핍박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환경과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그 땅

온전한 소원

열왕기상 3:4~15

“하나님은 거룩한 지혜와 방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거룩한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로가 보장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들은 안락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뜻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그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왕이 정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은총을 받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신을 섬긴다는 상징이었고, 순종을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8절).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거절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는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9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룩을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문제, 고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거룩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혜를 먼저 구하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먼저 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문화와 그 상황을 순교하듯 거부하며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감독관에게 “10일 동안 기회를

주십시오. 10일 동안 우리는 물과 채식만 하고, 그래서 왕이 정한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하고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벨론 한복판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요 16:33).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요일 5:4).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승리를 경험한 또 하나의 비결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뜻을 정한 것은 다니엘이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 세 친구들이 있었기에 더욱 용기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만나면 용기가 됩니다.

역사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는 일에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한 영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거룩이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같은 제국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같은 인본주의적인 이념, 철학, 사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속화시키는 시대입니다. 몸으로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눈을 뜨고 거룩을 선택해야 할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보호와 지혜를 허락해주시길 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이시며, 거룩에서 나온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거룩한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순교가 어렵다고 하지만 순교보다 어려운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바벨론 제국 같은 이 시대에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며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우리가!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늘 세상의 아픔과 함께 하셨다. 세상의 어려움에 먼저 다가갔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수급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 붙였다. 외출마저 꺼리는 상황에서 보여준 그 청년들의 헌신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행동으로 답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우려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있다. 헌혈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매년 한국에서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혈이 필요



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헌혈 수급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한 환자들을 위해서 헌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헌혈인구가 크게 줄었다.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하루 평균 혈액소요예상량을 계산해서 5일치 이상 비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혈액보유량이 3일치를 밑돌고 있다. 단체헌혈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이번 달 단체헌혈 취소 인원만 1만5천420명이나 된다. 단체헌혈을 예정했던 사람 네 명중 한 명이 취소를 한 상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헌혈

건수는 23만3천542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만6천133건 줄었다. 단체헌혈 주요 수급처인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면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인들이 직접 나서서 헌혈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인데 분명 한계가 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부천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팔을 걷었다. ‘헌혈 동참 인증샷 캠페인’도 시작했다.

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지난 10일부터 개인 또는 순별로 헌혈을 실시하고, 인증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있다. 아직 헌혈을 하지 않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혈액보유량이 회복될 때까지 캠페인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유현호 형제(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대표MC)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한다”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더 많은 성도들이 헌혈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수님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안전예방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한번 더 살펴달라는 부탁이다. 우리가 내밀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면 해답이 보일 것이다. 예수님은 늘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에서 이뤄지는 ‘선교교육’

“엄마! 아빠! 선교는 왜 하는 거예요?”

자녀의 이 물음에 답할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해야지”, “교회에서 하지니까 해야지”, “선교가 교회의 비전이야”라는 대답은 옳은 말이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안 하느니만 못한 답변일 수 있다.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결심한 자

녀가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가난한 나라 아이들의 삶을 보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불평 불만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라고 말한다면 부모는 뭐라고 답해줘야 할까?

“아웃리치 다녀오더니 철들었네. 이제 말 잘 듣자”라고 한다면 0점이다. “그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라고 한다면 50점짜리 대답이다.

부모들은 아웃리치를 다녀와 가난한 국가

의 아이들에게서 상대적인 행복과 만족을 느낀 자녀들에게 복음 전도의 필요성과 함께 가난한 아이들이 하나님에 지으신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교육해야 한다. 또한 선교적인 삶은 해외 아웃리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가장 모범적인 선교교육은 부모가 선교적으로 살면서 삶으로 자녀들에게 선교를 가르치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에는 선교와 관련된 예배, 기도모임, 스쿨 등이 무수히 많다. 교회 서점에는 다양한 선교 관련 서적들이 있다. 가정예배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선교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와 정보가 무궁무진하다. 가정예배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자녀들이 일상에서 선교를 행하도록 돕는다면 이보다 좋은 선교교육은 없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본문: 요한복음 6장 9-13절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메시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가르침은 구원을 알게 하시고, 허락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의 지친 모습을 보시며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이 있느냐?”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

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째,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와 떡을 모인 무리 모두가 먹고 남게 하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기에도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최선의 것을 받으시며 이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맡기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리며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받으십니다.

둘째, 원대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위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5천 명쯤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 모두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 열두 바구니에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한계란 없습니다. 어제든 계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광대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가정되시길 바랍니다.

/ 문영재 목사

*오늘(2월 23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YouTube 채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통해 직접 가정예배 Live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기고 명화와 함께 읽는 성경

“천국열식을 네게 주리니 내 양을 먹이라”

라파엘로의 ‘베드로에게 천국열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Christs Charge to Peter〉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융합심
리학연구소장)

내가 라파엘로 산치오(1483~1520년)가 그린 ‘베드로에게 천국열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1515~1516년)의 실물을 처음 본 건 런던올림픽이 열린 2012년 여름이었다.

당시 문체부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올림픽 기간 중에 런던을 가게 되었다. 우리 부처 직원들은 한국 선수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 하나가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V&A)에서 열린 한국 의상과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였다. 의상 발표는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이 맡았고, 한국 음식은 비비고(CJ제일제당)에서 해외에 첫 출시하는 비빔밥이 주메뉴였다. 당시 올림픽 참관 차 온 외국인들과 런던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초청 받아 참석했다. 행사는 성황리에 끝났다. 당시 V&A 관장은 행사 전에 도슨트(박물관 안내자)를 자임하며 박물관에 전시된 주요 작품들을 자상하게 해설해 주기도 했다.

마침 박물관이 휴관일이라 넓은 박물관에 우리뿐이었다. 나는 장관을 수행하고 온 본분을 망각한 채 내부를 종횡무진 했다. 그러다 라파엘로관에서 큰 그림 두 점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는 라파엘로의 ‘고기잡이 기적’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오늘 소개할 ‘베드로에게 천국열식을 주시는 그리스도’였다.

나란히 걸린 두 작품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생각보다 큰 그림 사이즈도 놀라웠지만, 그림이 주는 엄청난 무게감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대체 얼마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시간도 멈추고, 몸도 굳었지만 내 가슴은 뛰었다. 오!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 앞에서 내적으로 전율하던 내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 했을까? 내가 단순한 취미생활을 넘어 심리학적 상징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성화를 탐구하고 글을 쓰고 강연을 시작한 것도 그날 이후였다.

드디어 베드로에게 천국열식을 하사하시다

오늘 라파엘로의 그림과 함께 묵상할 성경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20절과 요한복음 21장 15~17절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열식을 맡기며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이다.



라파엘로 산치오의 ‘베드로에게 천국열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Christs Charge to Peter)

이 그림은 당시 라파엘로의 스승인 페루지노가 그린 ‘천국열식을 받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는 페루지노의 수제자였다. 이 사제기간처럼 루벤스, 푸생, 귀도 레니 등 수많은 후배 화가들도 같은 소재로 작품을 남겼다.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자. 그림 왼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다. 라파엘로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자국을 선명하게 그려 넣고 제자들을 12명이 아닌 11명만 그려 넣어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 예수님의 하얀 옷 역시 부활 후임을 암시한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당신의 신성(神性)을 보여주셨던 ‘거룩한 변모’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뵈랴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마 9:3).

예수님의 부활 직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가 빈 무덤 안에 있는 두 천사를 만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마 28:3)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주검을 싣개졌한 세마포(마 27:59) 역시 흰색이었을 것이다. 흰색은 완전한 순결, 죽음의 어둠을 이긴 빛나는 승리를 상징한다. 라파엘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을 하얗게 묘사한 이유일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왼손은 베드로를, 오른손은 양떼를 가리킨다.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무릎 꿇고 열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가 베드로다. 예수님이 물으신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세 번이나 거듭하시며(요 21:15~17) 그의 믿음을 세 차례나 거듭 확인하신 이후 마침내 그에게 양떼를 맡기신다.

가이사라 빌립보 어느 강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반석이란 이름을 가진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즉, 저승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 16:15~18).

그러니까 라파엘로의 이 그림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실린 두 내용을 하나의 그림 속에 뭉뚱그려 표현한 것이다.

원래 ‘양(羊)’은 복합적인 상징을 갖는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은 백성을 뜻한다. 양들은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를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 또 하나는 양이 아닌 선한 목자를 상징하는 역설적인 경우이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희생양이기도 하셨기 때문이다.

‘바위(반석)’ 역시 이중적인 상징을 갖는다. 앞서 말한 반석이 베드로의 이름과 같은 뜻임에 근거하여 베드로의 믿음을 상징한

다. 또한 바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한다. 모세가 시내산을 지날 때 호렘 바위를 치자 생수가 샘솟았다(출 17:6). 여기서 바위는 목마른 양떼들에게 생명수 같은 존재인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열식을 하사하신다. 여기서 열식은 영적인 부요(富饒)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천국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상징한다.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이후 도상학(圖像學)에서 열쇠는 베드로를 상징하는 지물(attribute, 속성)이 된다.

“나는 또 네게 천국열식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 16:19).

안셀름 그뤼에 의하면 여기서 ‘매이고 풀리다’는 말은 예수님과 의 연결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와 매이는(연결되는) 것은 나를 부자유와 사슬과 두려움에서 풀어주고, 마침내 나를 내 자집(ego)의 함정에서 풀어준다.”

그리하면 너에게 천국열식을 주겠노라!

그렇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 자신을 뜻한다. 베드로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다. 그는 믿음과 의심,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제자라고 큰소리치다 하룻밤 새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안셀름 그뤼에 말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자가 베드로처럼 항상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그는 예수와 마태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제자다.”

마침내 그리스도와 매인(연결된) 베드로는 진정한 제자로서 사역하다가 순교하고, 그의 무덤 위에 성당이 세워지기까지 한다. 라파엘로가 멀리 원경(遠景)에 그려 넣은 성당이 바로 성베드로 성당이다. 주님은 라파엘로의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에게 매일 것이냐? 너는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항상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열식을 주겠노라!”



자노라 형제는 그두족 현지 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사랑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학생초청 훈련사업’ 열매 맺어

NGO 더멋진세상이 실시하고 있는 ‘학생초청 훈련사업’에 참가했던 자노라 형제가 본국인 미얀마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자노라 형제는 NGO 더멋진세상 학생초청 훈련사업에 선발돼 전주비전대학교에서 ‘국제협력기술’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올해 2월 졸업한 자노라 형제는 미얀마 NGO 더멋진세상 지부에 투입되어 현지인

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줄 예정이다.

자노라 형제는 “온누리교회와 NGO 더멋진세상에 받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고국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겠다”고 다짐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4년부터 학생초청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학생 4명이 학생초청 훈련사업에 선발되어 한국에서 대학

교를 졸업하고 고국에서 사역중이다. 르완다에서 온 유학생은 현재 전주비전대학교에 입학 준비 중이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 미얀마 지부는 프라미스홈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20명의 학업을 돕고 있다. 곧 새로운 기숙사를 설립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을 섬길 계획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농어촌선교팀 재능기부 봉사자 모집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세례교인

농어촌선교팀에서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농어촌선교팀은 농어촌 미자립교회 아웃리치, 정기 기도모임, 바자회 등의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선교팀 재능기부 봉사자 모집분야는 건축설계, 조적, 도장, 목공, 용접, 전기, 의사,

한의사, 미용, 웹디자인, 행정 등이다. 봉사자 지원자격은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세례교인이다. 매주 일 오전 8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홀기도실(지하 2층)에서 기도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010-3715-0193

하반기(8~12월) 결혼예배 날짜 추천

3월 11일(수) 오후 7시 서빙고 한동홀

온누리교회 2020년 하반기(8~12월) 결혼예배 날짜를 3월 11일(수)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추천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모두 이날 추천한다. 결혼예배 예약은 예비신랑신부, 혹은 양가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거나 가능하다. 결혼예배 날짜 추천에는 예비신랑신부 또는 양가 부모만 참가할 수 있다. 대리예약은 불가하다.

예약금 50만 원과 교인확인증명

서를 지참해서 3월 11일(수) 오후 7시까지 참석하면 된다. 오후 7시 이후 입장하는 성도는 모든 순번 추천이 끝난 다음 접수할 수 있다. 결혼예배 날짜 추천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비뽑기로 순번을 추천한 다음 그 순번대로 결혼예배 날짜를 선정한다. 미리 희망하는 결혼예배 날짜를 2~3개 정도 정해오게 좋다.

문의: 서빙고 02-3215-3179

양재 02-570-7505

온누리선교재단 관리차량 보험업체 선정

일반경쟁입찰로 총 68대 계약

온누리선교재단 관리차량 보험업체를 선정한다. 일반경쟁입찰로 총 68대(직접관리차량 29대, 간접관리차량 39대)를 계약한다. 기간은 올해 3월 26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다.

보험업법 제4조 또는 제87조 규정

에 의한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3월 6일 오후 5시까지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보험금 산정 입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02-3215-3125

이메일: 08joy@onnuri.org

2월 세례자

■서빙고
이건기 830524
김양현 600325
서 훈 590416
신현숙 621011
이봉균 601019
이상훈 660424
이순희 700706
정성호 580209

■양재
박은주 821020
변윤재 710921

입교 권기윤 000627
하늘 김근형 990919
김여은 970307
안지혁 970310
조용준 990117
입교 이은혜 990720

J4U
윤동규 941025
이보미 840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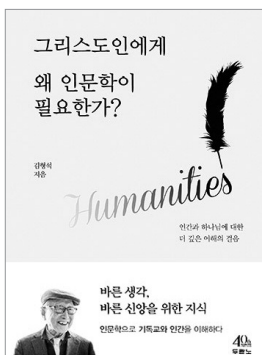
SNS
이규연 920221
이태영 911014
입교 이시아 930707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9217	김동현	남양주B	1139427	이주연	여호수아
1139403	채명진	서빙고	1139428	정희원	여호수아
1139407	박장호	중종로	1139429	조성준	여호수아
1139409	김성일	마포	1139430	조현아	인천 미추홀
1139410	고병훈	경기A	1139431	나상권	수원 북누리
1139417	김윤식	Bridge33+	1139432	성은지	허브
1139421	이예림	여호수아	1139433	고민서	허브
1139422	김희정	여호수아	1139434	구세연	허브
1139424	임현진	여호수아	1139435	이제영	허브
1139425	김홍인	여호수아	1139452	최희수	SNS
1139426	이은규	여호수아			

두란노 신간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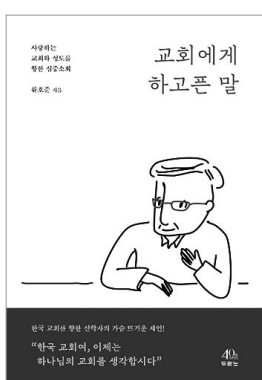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김형석 저 | 두란노 | 14,000원

“그래서 결론만 말해봐.”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일까? 사람들은 스스로 고민하는 것보다 남들이 내려주는 결론을 좋아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읽거나 관련된 주제의 글들을 찾아보는 노력보다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들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우리 사회는 책을 너무 읽지 않아 빈곤하다”고 지적한다. 크리스천은 더 열심히 독서하고 사색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보다 인간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을 전하는 것과 스스로 곱씹고 곱씹어 전하는 복음의 전달력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저자 김형석 교수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걸음은 인문학으로 내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인문학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종교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기독교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독교와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크리스천들에게



〈교회에게 하고픈 말〉
류훈준 저 | 두란노 | 14,000원

이 책은 25년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목회하고 은퇴한 류훈준 목사의 소회를 엮은 책이다. 〈목회와 신학〉에 ‘류훈준 교수의 심중소회’라는 주제로 2년 동안 연재된 글을 묶었다. 저자는 60여 가지 교회의 폐단을 지적하며 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교회가 설립자, 창립 멤버, 돈 많은 장로 등 몇몇 기독교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가 되어 버린다고 지적한다. 사유재산이 되어버린 교회는 이웃 교회와 경쟁을 시작한다. 성경적이지 못한 사례들이지만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다.

저자가 언급한 60가지 폐단을 피해갈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걱정될 정도로 한국 교회에 적폐가 만연하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나와 내가 다니는 교회에는 어떤 폐단이 있는지를 하나씩 점검해보자. 류훈준 목사가 쓴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신앙에세이

코로나19 앞에 선 크리스천

조병훈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축복의 일을 통해서도, 또한 고난의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먼저 나오는 기도이다. 요셉의 고난의 인생, 모세의 광야의 삶, 욥의 고난과 이스라엘의 수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셨다. 이번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히 담겨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역할이다.

코로나19는 질병의 영역을 넘어서서

와 크리스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기도할 때 뉴스를 통해 이러한 소식을 들었다.

“헌혈 부족, 코로나19로 인해 헌혈하는 단체들이 취소하고, 개인들의 참여율도 낮아져서 헌혈보유량이 심각한 수준이다. 환자들이 수술을 연기해야하고, 응급 상황에서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크리스천의 역할에 대한 응답을 주심을 깨달았다. 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지체들과 코로나19 앞에 선 크리스천의 적극적 자세와 헌혈동참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권면했다. 청년들도 공감하며 적극 동참했다. 대학청년부 멘토님들도 함께 했다.

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코로나19의 상황이 누그러지고 헌혈 부족이 해소될 때까지 ‘헌혈동참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도 담당목사로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의 가치관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전에는 예배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예의 없는 사람으로 간주됐지만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버렸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은 취소됐고, 사람들이 모이는 극장, 시장, 식당에도 가기를 꺼려한다.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사람관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코로나19가 육체적 전염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사회적, 심리적 전염을 전파하고 있다.

이 큰 사태 앞에서 크리스천으로서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온다. “세상을 다스리라”는(창 1:26)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과 인간의 수많은 욕심과 죄가 이 일의 시작임을 알기에 회개의 기도로 이 어려움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다.

코로나19 앞에서 크리스천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기도한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방어적 자세만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 이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교회

바로 다음날 아침 헌혈의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전날 수면부족의 이유로 그날은 하지 못하고 며칠 뒤에 재도전해서 헌혈을 했다. 마음과 의욕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코로나19의 사태를 바라보며 2001년 뉴욕 911테러사건 당시 한 신문기사가 떠오른다. 빌딩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무너지는 빌딩 반대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달렸다. 그때 누군가는 그들에게 “더 빨리 달리십시오! 더 빨리!”라고 외치며 오히려 무너지는 빌딩 방향으로 달렸다. 그들은 소방관이었고 경찰관이었다. 그들은 달리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일로인해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의 질문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장로칼럼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이재규 장로
(동대문중앙 공동체)

나라 위태로울 때
내 목숨 지키듯 나라 지키게 하소서
교회 위태로울 때
십자가 예수님 피에 나의 피도 흐르게 하소서

때 분별하도록 우리 안에 계시고
가야할 길 볼 수 있게 우리 눈이 되소서
위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 의로 위선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나라 어렵게 하는 악한 세력
주님 힘입어 담대하게 이기게 하소서
이긴 후엔 악한 세력의 도구된 불쌍한 영혼
예수님 사랑으로 구원하여 온전한 승리하게 하소서

피 흘려 싸운 용사
고요히 기도한 성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용사
행동한 양심의 실수조차 감사케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손발 되고
이 나라의 교회 하나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온누리에서도 이루시옵소서. 아멘

권사칼럼

세상과 구별된 ‘선한 그리스도인’

조혜선 권사
(강남C공동체)

새해 들어 작은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었다. 제목이 금방 내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았다.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너무도

평범하고 자주 들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크리스천들은 흔히들 듣는 말일 것이다.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보며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났다. 평소와 같이 별 감동과 느낌 없이 지나쳤다.

선물 받은 책을 큐티책상에 며칠 동안 가만히 올려 두었다. 한동안 겉표지만 묵상하다가 책을 펼쳐 들었다. 존경하는 담임목사님이 새해에 주시는 메시지만 한 번은 꼭 봐야 하는 의무감에 읽기 시작했다.

“우리는 위대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다”

첫 장을 펼치고 들어온 문장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제야 끌리지 않던 제목도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천천히 책장을 넘겨나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소금이며, 무엇이 빛인지 깨달았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리라”라는 말씀은 눈물 없이 기쁨도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인생의 목표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떨치게 통과하여 그 고통이 행복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불행은 환경과 물질과 성취에서 행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요, 전부다. 선한 양심이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죄로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경험하고 중생한 사실을 믿는 것이다. 우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처럼 믿음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때 그들과 동일한 담대함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서 꾀박받는 자로 성숙하라”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품과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속제는 마음의 가난에서 누리는 천국에 머물지 않고, 더 성숙하여 의를 위하여 꾀박받는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책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는 각 주제를 통해 복음을 간직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전한다. 그리스도인이자라면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성숙한 제자도가 주옥같이 담겨져 있다. 이 책을 통하여 2020년 나를 포함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진정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해본다.

